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광주도시공사에 바란다

은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도시공사는 새로운 시장 취입과 함께 주거복지와 도시 재생,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를 위한 ESG경영을 통해 혁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먼저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도시 재생은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의견을 받던 초소형 단위세대(7평)에 대해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철거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기 해소 및 주거환경 질 개선을 전국최초로 이룬 것이다.

또한 상무지구에 광주시와 함께 짓기로 한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계획도 있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세워진 계획으로 지역의 임대주택이 서민들의 요구에 충족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입주 자격과 주택의 규모 등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과거 사회문제화 되었던 영세 서민들이 거주하는 낡은 소형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평생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나 도심소규모 택지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이 구상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년부터 광주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종합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을 발굴해야 될 것이다. 기존의

주거복지가 무엇을 제공할지를 미리 정해 놓고 필요한 곳에 배치했다면 앞으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진단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후임대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사업 뿐 아니라 공동체 복원과 환경 개선 사업을 주거에서 공간으로 확대하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충원 등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센 ESG 열풍을 들 수 있다. 2006년 유엔은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에 대해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촉구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ESG경영을 도입하며 지속 가능 경영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바로 환경에 대한 책임인 듯하다.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2050 비전과 정책을 내놓았고, 광주시도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또한 한전과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ESG경영과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드는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도 ESG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의 심의나 경영 전략 및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고 한다. 따라서 순환경제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그린 빌딩, 폐기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되기 바란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사람꽃

“그나저나 빼앗긴 허리는 좀 아껴요.” “해남 닥 허리 고치려면 콩꽃 많이 피어야 쓰셨네임” 노인들에게 꽃은 그런 의미이다.

시골 사람들은 평생 꽃을 심고 가꾼 이들이다. 그들이 심고 피운 꽃은 넓은 들만 가득 해야 할 수 없이 많다. 깨꽃 배추꽃 장다리꽃 보리꽃 나락꽃 호박꽃 외꽃 상추꽃 열감미꽃. 사시사철 피고 진다. 눈발 가득 심었으니, 팔기 위해 심지 않기에 출하도 시드는 것도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꽃이 져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꽃이 시들거나 지는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이다.

보기 위한 꽃과 열매를 거두기 위한 꽃은 다르다. 그들이 가꾸는 꽃은 하우스 안에서 그리고 화분으로 옮겨지는 귀족이 아니다. 들판에서 비바람 맞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다. 색깔도 진하고 향기도 그윽하며 크고 우아한 ‘눈으로만 보는’ 공주같은 꽃이 아니다. 무더기로 서로 어울려 피고 열매도 툭툭하게 맺어야 하는, 자기들 모습을 그대로 닮은, 눈보다 ‘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꽃이다. 온 산을 물들이는 진달래나 호수 주변에 무척무척 핀 벚꽃처럼 화사하지도 않지만, 사람은 물론 산과 들에서 사는 모든 생명의 숨을 쥐고 있는 꽃, 그런 꽃이다.

회관이 시끄럽다. 춘양댁이 삶은 옥수수를 머리에 이고 싱글빙글 나타난다. 손자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단다. 춘양댁은 이제 죽어도 좋단다. 이제 살만 낫는데 진짜 죽을 거나고 마을 사람들이 해죽죽 웃는다. 노인들 이가 춘양댁 옥수수처럼 들쭉들쭉 찢는다.

그때 능주댁 전화가 올린다. 전화를 받은 능주댁이 마포 바지 방구 빠지듯 웅하니 회관을 빼져나간다. 이미 속사정을 알고 있는지라, 마을 사람들 얼굴이 어둡다. 서울 사는 둘째 아들이 수술했단다. 누군가 호주머니에서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방바닥에 놓는다. 여기 저기 한 푼 두 푼이 쌓인다. 서울 가는 여비라도 보태겠단다. 잘 먹던 감자나 옥수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음식을 도란도란 나눠 먹는 이들이 식구다. 슬픔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사람뿐이다.

이보시오, 도암 양반, 무슨 꽃이 가장 오래 피는지 아시오. 아 그야 보리하고 나락꽃이지, 백일홍은 백일이 나 핀담서. 무슨 말씀, 가장 오래 피는 꽃은 사람 꽃이여, 백 년도 더 피잖아.

그럼 가장 이쁜 꽃은 먼 꽃이당가. 당연히 고것도 사람꽃이제. 사람보다 더 이쁜 꽃이 어디 있을라고. 그래 맞아, 목포댁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추를 팔 때가 장 이쁘든만. 여수댁 모내기 험서 웃는 주름살 봐 이보다 더 이쁜 꽃이 있을라고.

도암 양반과 여수댁이 살갑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근디 꽃도 시들면 안 이쁘단개 사람도 늙으니 하나도 안 이쁘단디. 먼 소리랑가. 사람은 마음씨를 이쁘게 먹으면 늙어서도 더 향기롭지, 꽃은 이빠야 하고, 사람은 향기가 나아 하는 법이여, 저 찜짓돈 꺼내세, 사람꽃이 진짜 이쁘고 향기로운 꽃이여. 버스를 기다리는 능주댁이 추울세라 마을 노인들이 동그렇게 꽃처럼 바람을 막아 준다. 나도 그 틀에 얼굴을 내밀고 온기를 더해 본다. 능주댁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손해 보는 느낌

학위 없는 미국 아카데미를 1년 다녀온 걸로 입사한 최 부장이 부부장이 되었다. 그는 아직도 독수리 타법이지만, 말을 기가 막히게 잘 한다. 마치 미국에서 10년은 산 것처럼 영어를 섞어 쓰고, 사업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며 부서비를 쓰고, 부하 직원들을 당돌한다. ‘그것도 능력이야 라는 뒷사람들의 말 끝에 힘이 빠지고 술맛조차 떨어져서 추위에 떨며 오래 걸어야 했다.’

손해 보는 일 많은 여러 사람들 이야기다. 줄잘못 서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일 있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가짜보다 못 살고, 성실하게 제 몫을 했는데 빼앗기고, 남의 허위 이력 때문에 내 위치가 무너지고, 말발 좋은 사람 때문에 내 가치가 현명없이 떨어진다.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은 속만 상하는 게 아니라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뛸 일이다. 그래도 어찌지 못해 분한다.

화가 불꽃 나가거나 자주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뜻밖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만큼 손해 보는 일이 많다는 것이리라. 그 분노를 같잖은 사람에게 쏟아내거나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때로 앞뒤 못 가리고 뒷사람에게 퍼부어서 또 다른 손해를 보기도 한다.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는데 그걸 그리 쉽지 않다. 공자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니까. 그저 손해 보는 느낌으로 화내면서 살게 된다. 분노 조절을 못 해서 행복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만 본다.

보통 사람들은 혼자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알랑방귀를 뀌어야 하는데 성격이 따르지 않고, 술을 사든지 해야 하는데 형편이 안 된다. 학자들은 원인을 분석한 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고상하게 말하지만, 장삼이사(張三李四) 주제에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원인을 찾다가 조상을 탓하게 되고, 분노 지수는 오히려 속속 올라간다. 설명 어렵사리 원인을 찾았더라도 해결책을 찾기는 더욱 어렵다. 만에 하나, 해결책을 찾았더라도 실행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리더가 뭔가를 바꿔 주기를 바란다.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리더를 에타게 기다린다. 그저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틴다. 기득권들은 대화와 조정을 내세우며 합리적인 리더를 느긋하게 이야기하지만, 손해 보는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리더를 원한다.

기득권들은 결단을 무식이라고 비난하기 쉽다. 변화를 추진하면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기득권들은 지금처럼 살거나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지금처럼 살거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추진력이 아니다. 기득권끼리는 잘못을 감싸는 것을 포용이라고 말하지만, 잘못을 감싸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일상이 그렇고, 회사가 그렇고, 나랏일도 그렇다. 바꾸지 않으면 기득권이 좋아하고, 바뀌지 않으면 서민들은 희망이 없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도 않고, 바꾸지 않으면 더 나아지지도 않는다.

社說

비리 연루 의혹 단체장 신속한 수사·재판을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 연루 의혹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옛것제 강인규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을 돌리거나 정치자금을 부당할 용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일정 기간 박탈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이상익 함평군수는 남품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송욱 강진군수는 지역민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군수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검경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를 받으며 선거에 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의 늦은 판단은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 신문 대표 시절 신문발전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오는 2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물론 단체장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구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검경과 재판부는 지역민들이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지물 된 ‘518 보상법’ 조속히 개정해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신청 기간 오류로 인해 아무 쓸모가 없게 됐다. 현행 5·18 보상법에는 보상 신청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아놓은 기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공포된 5·18 보상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됐고, 성폭력 피해자나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기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명시된 2015년 법 조항이 지난해 개정 과정에서 수정·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해직 기자와 학사 징계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5·18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상 신청을 받아야 하는 광주시도 업무를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요즘 보상을 신청하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지만 법규 오류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측은 보상접수를 받는 상설 기구를 제안했지만 이 부분이 빠지면서 기존 7차 기간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간을 바로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 언론인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바법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만큼은 아니지만, 4개월여 남은 6·1지방선거도 급속히 지역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지방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이자 ‘닷컴’으로 꼽히는 광주·전남에선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아직까지 통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종전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대통합 또는 대사면’이라는 명분으로 과거

에 대한 ‘페널티’(불이익)를 줄이거나 없애 주기 위해 심사 기준으로 ‘대선 기여도’를 내세우면서 ‘이재명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하려는 이들도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기준이 사실상 불명확한 상황인 만큼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재명 캠프 당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페널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이번 민주당의 ‘대통합’ 시도가 3월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실제 투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

옛 적과의 등침

여기서 민주당의 ‘대통합’ 시도가 3월 대선에서 여당 후보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의 실제 투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여 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계 복당 인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 대선 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면 민주당을 지켜 온 기존 호남 세력과 복당 세력 간의 ‘치열한 자리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도 예전 국민의당 소속 인사들을 주축으로 복당 신청자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사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복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복당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